

농어촌공, 이란과 농업농촌개발사업 추진 협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이란 수자원관리공사(IWRM)와 대카룬(Big Karoon) 지구 종합개발 등 이란의 농업농촌분야 신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월 29일부터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에 경제협력 사절단으로 참여해 이란수자원관리공사와 지난 2014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수자원 및 농업농촌분야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카룬(Big Karoon) 지구 농업농촌개발사업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농지조성, 농촌소득증대 등을 위해 △댐, 도수로 개발 △농지조성 △농업기술전수 △종자, 비료, 농기계 등 농산업 민간 참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사와 이란수자원공사는 공동기술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공동협력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제1차 공동기술위원회 회의 이전에 공사 현지조사단을 이란에 파견하여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국 간의 농업·농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을 포함한 한국 농산업을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이란의 관개배수 및 농업농촌개발 분야 대표기관인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와 이란관개배수위원회(IRNCID)는 3월 2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자원·관개분야 협력 및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3.14〉

농어촌공, 정부 3.0 우수 공공기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서 선정한 2015년 정부 3.0 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월 12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1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간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해 29개 우수기관을 발표했다.

농어촌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시스템 개선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 추진 △스마트워크 도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사는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 관련 정보제공과 신용카드 납부 도입, 분할납부 조건 완화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공사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 스마트워크 도입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소통과 협업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공기업 혁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사는 전국 93개 지사를 ‘행복충전소’로 지정하고 노후주택 고쳐주기, 마을환경개선, 독거노인 진짚상 배달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농정 최일선 기관으로서 농어촌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농어촌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에서부터 정부 3.0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5.12〉

아세안 최대 농기계 전시회 'SIMA 아세안 태국' 9월 8~10일 개최

국내 농기계업체들이 내수부진 등에 대응해 수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ASEAN)지역에 최신농기계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태국의 전시기획 및 운영회사인 '임팩트'(IMPACT Exhibition Management)와 전시관련 주관사인 '코멕스포지움'(The COMEXPOSIUM Group), 농기계분야의 프랑스 및 국제장비업체가 모인 '악세마'(AXEMA)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농기계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들은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에 위치한 임팩트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SIMA(시마) 아세안 태국 201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지역 최대의 국제 농기계 전시회인 'SIMA 아세안 태국 2016'에는 농기계 및 축산관련 기자재, 시설원에 관련 기자재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SIMA 아세안 태국 2016'은 전 세계 450개 이상의 출품업체와 2만5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장비의 시연, 국제학술행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농산물 전시회 등이 부대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전시회 관계자들은 이번 전시회가 제조업체, 유통업체, 컨설턴트 및 수출입 산업 등에 있어 보다 강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세안 지역 전체 농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임팩트의 로이 준 하우 전무는 "2015년 제1회 전시회의 경우 300개 이상의 기업이 출품했고, 세계 각국에서 1만3200여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전시회 기간 중 10억 바트(1바트=약33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며 "제2회 전시회는 아세안 농산업을 위한 거래, 네트워킹, 지식의 허브로서의 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흥미진진한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IMA 아세안 태국 2016'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해서 한국관을 구성할 예정이며, 전시회 문의는 주한프랑스국제전시협회(Promosalons Korea, 02-564-9833)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5.13)

'농업인행복위원회' 첫발

농협의 자문기구인 농업인행복위원회가 5월 18일 첫발을 내디뎠다. 위원회는 현직 농협 임직원의 참여 없이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농업·농촌·농협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2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협법 1조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농업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농업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농협운업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위원장=원철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 ◆위원=▲손은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후원단장 ▲이성희 전국새농민회장 ▲이진하 치즈빌아카데미 원장 ▲이명수 우석대 초빙교수 ▲민승규 한국벤처농업대학 교수 ▲박영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문강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주간 ▲유애리 KBS 편성본부 아나운서실장 ▲김정주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 대표 ▲박재영 서울대 객원교수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정영숙 약선음식전문점 (주)정림 대표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박남주 풀무원 부사장

〈농민신문 : 05.20〉

‘농촌체험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농촌 주변의 관광자원을 둘러보며 다양하고 활기찬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공유하며 농촌의 소중함과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10선으로 선정된 농촌관광코스는 농촌수확·음식체험, 역사체험, 목장체험, 휴양림, 숲체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명소, 수변 산책 및 자전거타기, 갯벌체험,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미술관 등), 역사유적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자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관광홍보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농촌관광코스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자원(관광지, 체험휴양마을, 박물관,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로, 경기도는 넓은들마을 등 8명소, 강원도는 한울타리마을 등 6명소, 예밀포도마을·삼곶마을 등 8명소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북은 한드미마을 등 6명소, 충남은 외암마을 등 6명소, 전북은 구담마을 등 6명소, 전남은 가정마을 등 4명소, 경북은 태티골마을 등 7명소, 경남은 비봉내마을·다슬기초량마을 등 8명소, 제주는 동광리농촌체험휴양마을 등 6명소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체험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은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하고 활기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명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삶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이색적인 체험을 해 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 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6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계절별월별로 관광테마를 선정하고 농촌휴양체험마을 주위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포함한 농촌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25〉

농어촌공, 민간기업과 개도국 농산업 공동진출 협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6월 2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농기자재, 물관리시스템, 유통·가공, 에너지 등 농업관련 9개 분야 25개 민간기업과 해외 민관협력사업을 동반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민간기업은 건화(엔지니어링 분야), 국제종합기계(농기자재), 남경(물관리시스템), 수자원기술(에너지), 도건엔지니어링(수문), 광희엔지니어링(펌프), 신송산업(유통·가공), 대원GSI(RPC), 지에스이(건설) 등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공사와 KCID, 25개 기업은 △해외 민관협력사업 파트너 우선 선정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한 상호 지원 △해외사업 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 및 노하우 공유 △해외시장 투자환경조사 및 투자정보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저수지, 방조제 등 농업 인프라와 농촌개발 분야에서 13개국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농업관련 10개 민간기업과 해외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엔지니어링, 물관리시스템, 유통·가공, 건설 등으로 협력 분야를 더욱 넓히고 전후방 농산업의 통합적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상무 사장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의 농업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길 요청하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개도국의 대규모 농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6.2)

농협경제지주-SPC그룹, '국산 농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이상욱)와 SPC그룹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이상욱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와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산 농축산물 판로확대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입원료의 국산원료 대체를 통한 국산 농축산물 판로확대 △양곡사업 확대방안 모색 △양사의 판매채널 활용을 통한 사업시너지 극대화 △학교급식·식자재사업 신시장 개척 및 공동 진출 방안 검토 △물류인프라 공동이용 △국산 농축산물 해외 수출 추진 △신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직원 교류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욱 대표이사는 “앞으로 농협은 국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업인에게는 제 값을 받게 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6.3)